

고등학교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통일교육원



# 목 차

## I

### 밀레니엄 시대,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1. 남북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 3
2. 냉전시대, 남북한은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 / 5
  - (1) 정치협상회의의 결렬과 6·25 / 6
  - (2) 7·4 남북공동성명 / 7
  - (3)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 8
  - (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북한의 NPT 탈퇴 / 8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다가서고 있나? / 10
  - (1) 이산가족 상봉과 작은 통일 / 11
  - (2) 남북 당국자간 만남의 제도화 / 14
  - (3) 경제교류협력에서의 새로운 지평 / 15
  - (4) 지뢰밭을 민족번영의 길로 만드는 경의선 복원 / 16
  - (5) DMZ와 JSA에서의 작은 변화 / 18
  - (6) 한반도기 아래 하나된 시드니 올림픽 / 18
4. 다른 분단국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 20
  - (1) 동·서독의 만남과 하나되기 / 20
  - (2) 중국·대만간의 만남과 다가서기 / 22
5.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 23

## II

###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27
2. 북한은 어떤 곳인가? / 28
3.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는 어떤 사람일까? / 31
4. 북한의 식량난은 왜 생겼을까? / 33
5.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 35
  - (1) 북한 사람들은 어떤 패션의 옷을 주로 입을까? / 35
  - (2) 북한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 / 36
  - (3) 북한에 하모니카집이 있다던데? / 38
  - (4) 직장생활은 어떤 식으로 할까? / 39

- (5) 북한 사람들은 언제 휴일·휴가를 가질까? / 40
- (6)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족보가 있을까? / 41
- (7) 북한 주부들이 모두 갖기를 원하는 5장 6기란? / 42
- (8) 연애결혼이 가능할까? 선호하는 신랑·신부감은? / 43
- (9) 북한도 우리와 같은 명절을 보낼까? / 44
- (10) 여가는 어떤 식으로 보낼까? / 45
- (11)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 47
- (12)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가요를 부르는데? / 48
- (13) 북한 사람들도 공중전화를 이용할까? 휴대폰은 있을까? / 49
- (14) 북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 50
- (15) 북한에도 각종 범죄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범죄가 많을까? / 52

6.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 53

- (1) 북한의 교육체계도 우리처럼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을까? / 53
- (2)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 54
- (3)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 55
- (4)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 56
- (5)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 57
- (6) 북한 청소년들은 과외활동을 어떻게 하나? / 58
- (7) 북한에도 우리의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 59
- (8) 수능시험이 있을까? 재수생도 있을까? 속칭 일류대학은? / 60
- (9) 북한의 교육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 62
- (10) 북한 청소년들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까? 오락게임도 있을까? / 63
- (11) 우리처럼 팬클럽을 만들고 열광하는 연예인이 있을까? 오빠부대는? / 64
- (12) 북한에도 야간자율학습이 있을까? / 65
- (13) 북한 청소년문화에도 서구식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을까? / 66
- (14) 노래방은 있을까? / 67
- (15)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 68
- (16) 북한 청소년들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까? / 69
- (17) 왕따나 공주병이 있을까? / 70

7. 북한은 변하고 있는 것일까? / 70

### III

## 하나됨을 위하여

### 1. 왜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 75

- (1)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 75
-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한 동포로서의 삶을 위하여 / 77
- (3) 분단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 78
- (4) 문화·복지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 80
- (5)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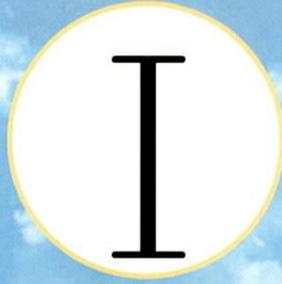
###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 82

- (1) 사실상의 통일을 위하여 / 82
- (2) 마음의 통일을 위하여 / 83
- (3) 평화지킴이에서 적극적 평화만들기로 / 85
- (4) 한반도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나아가기 / 86
- (5) 주변국들의 협력과 뒷받침을 통일의 서까래로 / 87

###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88

- (1)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정신을 갖자 / 88
- (2) 강한 의지력을 키우자 / 90
- (3)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갖자 / 90
- (4)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 91
- (5)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 91
- (6) 국제 사회의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 92
- (7)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신을 갖자 / 92
- (8)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 93
- (9) 민주 시민의 질서를 습관화하자 / 94
- (10) 나 보다는 가족, 사회, 국가의 소중함과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이가 되자 / 94
- (11)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자 / 95
- (12)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자 / 95





## 밀레니엄 시대,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1. 남북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2. 냉전 시대, 남북한은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다가서고 있나?
4. 다른 분단국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5.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 1. 남북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밀레니엄 시대 원년인 2000년 6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서로 적으로 여기며 대결해왔던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단순한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50여 년 분단사를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강산이 다섯 번도 더 변할 정도로 반세기 넘어 지속되어온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는 계기를 주었다는 점이다. 남과 북은 그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왔다. 서로를 없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에 한편으로 만남의 시도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두 개의 평행

선을 그어오며 살아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민족 전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적대·반목의 시대는 마감하고 화해·협력,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점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

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남북관계는 '갈등의 패러다임'이 아닌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같은 민족인 남북한이 함께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지나치게 '국제 문제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핵·미사일 등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남북대화보다는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가 더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평화·통일문제는 남북대화를 기본 중심으로 하고, 주변국가들이 이를 도와주는 구도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

셋째,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남과 북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를 굳혀나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다양한 교류협력의 노력들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홀로 살기'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눔의 즐거움을 넓히고 도울 것은 서로 도와 동포애를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자주 접촉하여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인지도 찾아내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가능해진다. 각기 다른 가정에서 성장해 온 남녀가 부부가 되어 백년해로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접촉과 대화, 협력과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넷째,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정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휴전상태인 한반도는 항상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계 언론들은 늘 국지적 전쟁 가능성 지역을 짚을 때 중동지역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한반도를 꼽았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시아의 지역경제권 만들기에 늘 장애물이었고, 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공존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경의선 복구에 의해 동북아 전체가 하나의 물류 유통망으로 연결되는 지역경제권 형성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아픈인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을 열어 주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 평화공존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우선 시범적인 이산가족 상봉과 편지교환의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한 면회소설치 문제까지도 전망을 열어주어 점차 이산가족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뜻깊은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의미들이 그대로 계속 실천되어 나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냉전 시대, 남북한은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냉전의 그늘 아래 대결과 갈등·반목을 해오며 제로섬(zero-sum) 경쟁관계를 유지해왔다. 즉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네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홀로 살기’ 경쟁을 해왔다.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체제우월성을 높이고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며 살아왔다. 이로 인해 남북한은 하나로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막대한 분단비용을 치르며 살아왔다.

냉전시대,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남북한의 만남과 다가서기의 모습은 이 습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만찬' 과 같다.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내놓는다.

두루미는 두루미대로 가는 호리병을 준비한다.

둘 다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꿀탕만 먹는다.

이 이습우화처럼 그동안 남과 북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상을 차려놓았다. 차려놓은 음식이 서로에게 어떤 영양가를 줄 것인가를 배려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나 탈이 날 줄도 모른다고 걱정되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남북한 사이는 오해와 불신을 누적시켜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때로 남북한의 만남과 다가서기의 과정에서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같이 '홀로 살기' 보다는 '함께 살기'에 공감하는 합의서를 이끌어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가서기와 멀어지기를 반복해 왔다.

### (1) 정치협상회의의 결렬과 6·25

남북대화의 역사는 1948년 4월 남측의 김구·김규식, 북측의 김일성·김두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치협상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의는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당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갔고, 1950년 북한의 남침을 계기로 남북한은 아주 기나긴 냉전에 돌입하게 된다.

## (2) 7·4 남북공동성명

우리 정부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UN 감시하의 '남북자유총선거' 방식을 강조하며, 우선 우리의 국력을 크게 키운 후 본격적인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자는 '선 건설·후 통일론'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국제적인 대탕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선 평화·후 통일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분단 이후 지속된 냉전의 어둠을 뚫고 통일의 서광을 비춘 첫 남북한 합의는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과 북이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평화의 원칙', 그리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남북이 공동으로 천명한 성명이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는 1972년 10월부터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려 2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부간 공식적인 대화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조절위원회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이견과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등 국제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남북대화는 제5공화국 초반기까지 간헐적인 접촉만 있었을 뿐 오랫동안 냉각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겨울잠에 빠져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년 '평화통일 3대원칙'을 표방하고 통일 이전에 한반도 평화의 정착,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조는 제 5공화국 시절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6공화국 시절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정부 시절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거쳐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 (3)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1984년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북한적십자사에서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여 1985년 말까지 제2의 남북대화 시대가 열렸다. 이 기간에는 남북적십자회담과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설치를 위한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등도 같이 열렸으며,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여 그리던 가족을 만나는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도 성사되어 드디어 한반도에도 데탕트의 봄바람이 부는듯 했다.

그러나 북측이 1985년 말과 1986년 초 우리 국군과 미군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모든 회담을 거부함에 따라 남북대화는 다시 무산되었고 또다시 깊은 겨울잠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 (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북한의 NPT 탈퇴

대결과 긴장의 관계로 치달아왔던 남북관계는 1990년 9월~1992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과 그 산물인 '남북기본합의서' (정식명칭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의 성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 남북화해 △ 남북불가침 △ 남북 교류·협력이 주요 내용이며,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정치분과위원회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외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을 잇따라 발효시켰다.

당시 우리는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과 함께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급속하게 증대된 사례를 상기하면서 남북의 만남과 다가서기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가졌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위기를 일으킴



클릭

알고 싶어요

○ NPT(핵확산금지조약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정식 명칭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고 애초 유효기간은 25년이었다. 이 조약은 전문, 본문 11개조로 되어 있으며 핵보유국의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제3자에의 이양 금지, 비핵보유국의 이와 같은 무기의 수령 금지, 독자개발의 금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가입국들의 핵군축·전면 완전군축조약에 관한 교섭을 성실히 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4월부터 뉴욕에서 열린 NPT연장회의에서는 5월11일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 데탕트(Detente)

국제간의 긴장완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1968년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1972년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죽의 장막'을 넘어 중국을 전격 방문, 미·중 국교정상화의 발판을 닦은 데 이어 소련과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체결에 합의했고, 1973년에는 베트남에서 미군철수를 완료해 동서화해의 데탕트시대를 열었다.

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었다. 특히 북한의 자연재해, 식량난, 경제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 북한 내부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북한이 체제고수를 위해 한편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 대결정책을 취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또 한차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잠겨 버리고 말았다.

###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다가서고 있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마치 한꺼번에 그 동안의 한을 풀려는 듯, 분단 50여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개되더니 불과 3개월여 동안 남북장관급회담이 세 번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남북당국자간 만남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문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문제, 경의선 복구를 위한 지뢰제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협실무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열리고 있다.

또한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 조선국립교향악단 공연, 평양교예단 공연 등 문화예술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에서 보내는 현지 방송 리포트도 안방에서 볼 수 있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앞세우며 함께 입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국적기인 고려항공이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풍경이 아닌 것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활발하게 오고 가는 모습들은 정상회담 이후 일어난 일들로서, 남북한이 새로운 자세로 만남과 다가서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1) 이산가족 상봉과 작은 통일

코엑스 이산가족 상봉장에 남쪽의 가족들이 이미 두어 시간 전부터 와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북에서 온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 진행요원들은 마치 연극의 서막을 연출하듯이 북쪽 이산가족들을 번호표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필요가 없었다. 행사장에 들어선 북쪽의 가족들을 본 남쪽의 가족들은 한눈에 서로의 혈육을 알아보며,

“오마니, 오마니!”

“여보...”

“오빠, 오빠 맞아?” “왜 이제 왔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부둥켜안은 가족들.

반세기 넘게 차갑게 식어 있던 가슴은 뜨겁게 하나가 됐다.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난 이산가족들은 눈물의 포옹을 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작은 통일’을 만들었다.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간 신뢰의 상징이자 화해·협력의 징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토록 애타게 만들었던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드디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 전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든 200가족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도 이산가족 상봉이 확대되고 서신교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면회소 설치문제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유행가 가사에 있듯이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비 5만 원, 하늘길로 1시간도 채 안 되는 거리, 그 곳에 남과 북 사람들은 이념이라는 족쇄에 채워져 혈육의 정을 끊고 살아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정해진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이산가족의 상봉은 15년 전에도 있었다. 그 당시 북측 이산가족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은덕을 베풀어 이렇게 상봉을 이뤄주시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판에 박힌 말만 하여 상봉하는 가족들 사이에 서먹서먹함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측 이산가족들은 한결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은덕을 내세우면서도 “앞으로 꼭 통일된 나라에서 다시 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말을 하며 남쪽의 가족들과 진한 혈육의 ‘작은 통일’을 이룩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천륜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은 베를린 장벽과 상관없이 이산가족들의 만남만은 막지 않았다. 그리고 겉으로 정치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대만도 지난 10여년간 이산가족의 만남이 2,500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혈육의 교류만은 터놓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분단이 다른 분단국들에 비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한다. 이제

남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 참을 수 없는 이산의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클릭

알고 싶어요

#### ○ 중국·대만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

주한 대만대표부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정치 상황은 아직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소한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이산의 아픔은 완전 ‘해갈’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는 1987년 11월 장징궈(蔣經國) 당시 대만 총통이 계엄법을 폐지하면서 터졌다. 그러나 사실 중국이 이에 앞서 1978년 개혁·개방을 주창하면서 대만에 통상·통항·통우(서신 교환) 등 3통(通)을 제안하고 이어 1981년에 이산가족 재회를 제의함으로써 이미 그 길은 열리고 있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친척방문, 병문안·조문 등의 명목으로 대만을 찾은 중국 본토 사람은 44만 9천여 명이 넘고 대만인의 본토 방문은 1,00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중국과 대만의 이산가족 교류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하여 양안(兩岸)간 정치적 상황이 최악의 긴장 국면에 빠져도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 ○ 동·서독의 이산가족 사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독일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동독으로 갈라져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 주민간에는 편지연락이 가능했고 전화연락도 끊기지 않았으며 만남도 허용되었다. 오히려 서독의 가족들이 가난한 동독 가족들에게 보내는 소포들이 동독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는 유지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독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서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은 1972년 동서독간에 기본조약이 만들어지고 동독정부에 의해 ‘가사 방문’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가사 방문’이란 서독에 있는 친척의 출생, 세례, 결혼, 문병, 문상 등을 위한 방문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서독에서 동독을 방문한 사람은 연 평균 3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 (2) 남북 당국자간 만남의 제도화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 당국자간 만남은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을 반복해 왔다. 정기적이지 못했으며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1990년대 초에 고위급회담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실천기구가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남북한간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신뢰구축, 긴장완화, 교류협력 등 많은 문제들은 늘 명분 속에서만 걸돌 뿐 실제적으로 해결되어 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불과 석 달여만에 벌써 세 번이나 남북장관급 회담을 열어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후 뒤를 이어 추진되어 가는 관계개선 노력들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남북간에 공식적으로 주고 받아야 할 서신과 문서, 연락해야 할 일들, 알려주어야 할 일들을 위해 남북연락사무소가 오랜 기간의 휴업을 끝내고 그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도 이산가족의 상봉행사,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릴 예정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남북당국자간 신뢰를 다지기 위해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앞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북한과 교역하고 투자하는데 필요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을 만들기 위해 남북경협실무자간 접촉도 열리고 있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려 경의선 복구를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와는 달리 남북당국자간 대화와 만남, 교류를 서서히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 더 이상 한번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분야부터 각 부문별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실천해 나갈 남북간 기구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3) 경제교류협력에서의 새로운 지평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그 시범적 사업으로 '달리고 싶은 철마'를 달리게 하도록 경의선을 연결하고, 나아가 문산·개성간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임진강 수해방지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 모두가 당장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민족의 복리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준다. 나아가 이 두 사업이 모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의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호 신뢰와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남북한은 장관급회담에서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 즉 투자보장협정이라든가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것을 만들기로 하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 남과 북은 국가간 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경제협정들이 요구된다. 남과 북은 그동안 이러한 경제협정 없이 거래와 협력이 이루어지다 보니 경제교류와 협력의 질적 규모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만일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진다면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 양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 사전 통일준비도 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지향하는 민족공동경제권을 만드는데 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지금 이 기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 (4) 지뢰밭을 민족번영의 길로 만드는 경의선 복원

1945년 9월 11일 서울에서 신의주 운행을 마지막으로 '민족의 대동맥'이 단절된 지 55년만에 경의선 복원과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공사가 마침내 시작됐다. 연결되는 구간은 문산역에서 장단역간 12km, 통일대교와 장단간 6km의 왕복 4차선 도로구간이다.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된 2000년 9월 18일은 우리나라 철도 개설 101주년 기념일이어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주었다. 계획대로라면 2001년 9월에 남북간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경의선을 타고 평양과 신의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끊어졌던 민족의 대동맥이 다시 이어지는 경의선 복원,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준다.

우선,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의미는 분단의 장벽인 휴전선 철조망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의 기차가 달리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뢰밭을 기차길로! 이것만큼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또 있을까? 남북한은 앞으로 한반도 서부동맥을 연결하는 이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원산, 함흥까지 가는

기차길도 복원하여 동부 전선의 휴전선 철조망도 끊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물류공급이 원활해지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경의선 복원



경의선 '염원의 열차' 출발

으로 남한은 바다나 하늘길로 가는 대신 육로로 많은 물자를 대륙으로 실어나름으로써 전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지는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의 물자가 통과하는데 따른 통과비용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경의선 복원은 '한반도 시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로서 높여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의선 복원이 단순히 남북의 끊어진 철도길을 잇는 차원을 넘어,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등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이른바 '철(鐵)의 실크로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과 목포에서 신의주로 가는 1번 국도의 연결은 그 동안 반 동강이로 존재해왔던 남북한의 육로를 이어주는 것이다. 절름발이가 되었던 한반도를 정상화시켜 주고, '반도의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대륙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도 한다. 우리는 이 뜻깊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북한과 면밀한 협의하에 잘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클릭

알고 싶어요

○ 경의선이 복원되면 얼마나 수입이 증가할까?

〈단위 : 만 달러〉

물동량	총계	남한수입	북한수입
총 계	13,614	5,934	7,680
- 남북간	6,218	2,234	3,984
* 컨테이너	3,109	1,117	1,992
* 일반	3,109	1,117	1,992
- 한·일~중국간	7,396	3,700	3,696

## (5) DMZ와 JSA에서의 작은 변화

판문점내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 회담장을 중심으로 한 지름 800m의 원형지대를 말한다. JSA는 1954년 11월 8일 유엔과 북한의 협정에 의해 만들어져 1976년까지는 양측 경비병들이 자유롭게 움직였으나, 1976년 8월 18일 '미루나무 도끼사건' 이후 군사분계선을 표시해 양측이 따로 경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경비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겨누며 지키고 있는 중무장지대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중무장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역은 20세기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 흔적인 동서 냉전의 유적이다. 한편으로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밀레니엄 시대까지 냉전사를 이어가면서 20세기에 스스로 풀지 못한 숙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부끄럽고 절박한 현장이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이 새로운 다가서기를 시도하면서 이 지역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귀따갑게 울려대던 서로에 대한 비방방송이 사라진 것이다.

남북한간 공존공영의 길이 다져지는 과정 속에서 정전협정이 적합한 절차를 통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 나간다면,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평화지대로 바뀌고, 영화 'JSA' 처럼 남북한의 병사들이 실제로 호형호제하며 지낼 날이 올것을 기대해 본다.

## (6) 한반도가 아래 하나된 시드니 올림픽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듯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의 선수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반도기 아래 함께 입장하였다.

남북한의 선수들은 2000년 9월 15일 오후 7시 호주 시드니 홈부시베이 올림픽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동시 입장하여 11만 8천여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진한 푸른색 재킷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남북 선수단은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을 맞든 정은순(남한)·박정철(북한) 두 선수를 앞세워 당당하게 스타디움에 들어섰다. 이 모습만큼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 세계인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래서 모두 기립박수를 아낌 없이 보내주었다.

과거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냉전논리가 풍미하던 시절 남북한은 각종 국제대회는 물론 올림픽에서도 마치 전쟁을 연장하고 있는 듯이 지나친 격돌을 벌였었다. 메달 한 개에 울고 웃었는가 하면 남북대결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늘 망령처럼 감돌았다. 그러나 남북한 스포츠는 시드니에서 감동적인 '대화합' 을 이루어냄으로써 대결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포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드니의 대화합을 기초로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형성,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 추진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 부활 등을 추진하여 남북의 화해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956년 바로 이 호주에서(멜버른 올림픽) 동·서독 선수들이 최초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동시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단

로 단일팀을 만들어 동시 입장하고 34년 후 통일로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클릭

알고 싶어요

#### ○ 동·서독 동시입장은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동·서독은 1952년 헬싱키 대회에 서독이 단독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하지만 동독은 1951년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단일팀 승인을 요청했고, 동·서독은 진통 끝에 IOC의 중재로 1955년 6월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여 드디어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서 단일팀으로 동시 입장했다.

동·서독은 이를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대회(이탈리아), 1960년 로마 올림픽, 1964년 도쿄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단일팀을 구성했다. 1956년 당시 국호는 독일, 단기는 흑·적·황 3색의 독일기에 오룬마크를 달았으며 국가는 베토벤의 제9번교향곡 '환희의 송가'였다. 선수 선발은 동·서독 구분없이 우수선수를 뽑았고, 단장은 다수 선수를 파견하는 쪽에서 선임됐다. 그때 선수단 규모는 서독 138명, 동독 37명이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IOC가 내놓았다. 당시 애버리 브런디지 IOC위원장은 "수많은 정치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스포츠인들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 4. 다른 분단국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 (1) 동·서독의 만남과 하나되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동·서독은 각기 미·소 냉전 체제에 속해 있어 대결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독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을 외교적으로 봉쇄한 채 "동독

과 교류하는 국가와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동독과 민간교류는 하되, 정부 차원에서의 관계 개선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동독 또한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국가들에게 “서독이 동독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서독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하며, 서독과 대립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동·서독간의 대립관계를 종식시킨 것이 두 독일 최고 지도자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다. 1970년 3월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독의 에어푸르트를 방문하여 동독의 슈토프 각료회의의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물꼬가 터졌던 것이다. 양독 정상간의 처음 만남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냉랭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동·서독은 곧바로 두 달 후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1972년 12월 드디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본조약 체결 이후 우편, 통행, 통신, 방송·언론, 환경,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부문별로 다각적인 협정이 맺어져 양독 주민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동·서독간의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는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이전에 서독은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의해 동독이 서독에 병합되는 합병통일을 추구했으며, ‘힘의 우위정책’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 통일이라는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간의 갈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나아가, 1990년 통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 마음속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 (2) 중국·대만간의 만남과 다가서기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가끔 대만해협 앞바다에서 군사적 긴장이 일어날 정도로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과 대만정부의 '대만의 실체 및 국제적 활동 인정 우선' 이라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과연 갈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및 사회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다. 1999년 1월 30일 인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1988~98년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연인원 1,300만 명이고, 공식·비공식 초청을 통해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연 평균 약 4만 명으로 교류 항목이 5,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과 대만은 3통(통상, 통우, 통항)이 아직 공식적으로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 직통 국제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과 이삿짐도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선과 국적기를 제외한 선박과 여객기도 형식적으로 홍콩에 기착한 뒤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만인과 중국 본토인과의 결혼도 2만여 쌍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경제교류는 대만이 무역수지 흑자의 80%를 중국시장에서 얻고,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두 번째 역할을 대만자본이 하고 있을 정도로 눈부시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홍콩, 마카오까지 합쳐 '중화경제권' 이 만들어질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중국·대만의 만남과 다가서기는 우리의 남북관계에 아주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실용주의적 접근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사상이나 이념보다 서로 이익을 보는 입장에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과 대만간 활발한 교류는 분단되어 있는 두 정부간의 관계 발전뿐만 아니

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민족통합의 계기로 작용하여 중국인의 역량을 보다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제가 서로 달라 필연적으로 정치·사상·군사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는 이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영역이 필요한데,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완충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는 점이다.

## 5.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는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의 만남과 다가서기가 시작되고 있다. 과거의 동·서독, 중국·대만처럼 더 이상 분단이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많은 교류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운 이산가족들도 만나고 끊어졌던 바닷길, 하늘길, 땅길 등이 하나씩 연결되어 대륙으로까지 뻗어나가도록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순간의 설렘에 들떠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눈이 팔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과거의 동·서독이나 현재의 중국·대만이 보여주듯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서로 돕고 이익을 나누는 남북관계는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단지 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남북한이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공존의 반석 위에 오르고, 나아가 통일이라는 꿈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그 주춧돌을 만들어 가는 작업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분단 반세기 동안 서로 적개심과 공포심을 갖고 바라보았던 편견이 남아 있어 서로를 '통일로 가는 동반자'로 바라보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아직도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될 때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소중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 핏줄, 한 겨레임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며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평행선을 그으며 달리지 말아야 한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북한도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나 서방과의 관계개선과 국제사회 진출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주거나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앞으로 북한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준비하는 각자의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I

##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2. 북한은 어떤 곳인가?
3.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는 어떤 사람일까?
4. 북한의 식량난은 왜 생겼을까?
5.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6.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7. 북한은 변하고 있는 것일까?



## 1.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어느덧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북한은 과거 6. 25 남침을 통해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적이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분명한 '안보 위협의 대상' 이자 '대결의 대상' 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즉 아직 안보위협이 사라진 대상은 아니지만, 평화롭게 함께 살며 통일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 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열리면서 동반자로서의 북한이 보다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보위협 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원히 평화가 정착되고 제도적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 이중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유념하고 북한에 대해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천리마 동상 앞에서 우리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을 중단했는가 하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는 장관급 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남북연락사무소 업무가 재개되도록 하는 등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 복원과 같이 남북한 사이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화해·협력 조치들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기보다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여기고, 앞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적이기보다는 '동반자'로 완전히 그 모습이 굳어지고, 보다 많이 변화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2. 북한은 어떤 곳인가?



평양 거리

북한은 우리처럼 유엔(UN)의 한 회원국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구는 우리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 현재 2,208만 2천 명이며, 국토 면적은 122,762km<sup>2</sup> (1999년 현재 한반도 전체 면적 222,418km<sup>2</sup>)

의 55%)이다. 따라서 북한에 우리나라 1/2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국토면적은 약간 넓어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총 360여 가지의 광물자원이 확인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에는 경제성이 있는 유용광물만도 200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중 마그네사이트는 전 세계 매장량의 1위(전 세계 매장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10위 안에 드는 광물도 중석, 몰리브덴, 흑연, 형석 등 7가지나 된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풍부한 금속광물과 에너지 광물을 이용하여 공업원료와 연료의 70%를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은 광복 이후 50여 차례에 걸쳐 조정되어 왔는데, 면 단위의 행정구역이 폐지된 현재는 1특별시, 2직할시, 9도, 25시, 38구역, 147군, 2구, 149읍, 3,311리, 896동, 251노동자구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사회는 그 특성상 다른 사회와는 달리 이념과 정치, 군사부문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수령의 유일 영도에 따라 수령-당-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주의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이념과 가부장적 봉건이념이 결합된 사회로서 주민들은 이에 규정된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혁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의해 117만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변화의 불가피성을 느끼면서 비록 강성대국론

을 외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계속해서 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려는가 하면,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실용주의를 확대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는 경제난으로 개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등장함으로써 이전보다 다양한 사회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도 이제 느리지만 “변하지 않는 사회란 없다.”라는 진리를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클릭** 알고 싶어요

○ 북한의 국가명·국기·국화·수도

북한의 정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North Korea)이다. 국기는 홍람오각별기이며, 국가는 애국가(우리나라의 애국가와 가사가 다름)이다. 국화는 목란이며 수도는 평양(Pyongyang)이다.

○ 노동자구

노동자구는 400명 이상의 성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65% 이상이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공장·광산·임산 마을과 어촌 등에 조직되는 말단 행정단위를 말한다. 북한은 1952년 12월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 리(동)의 4단계 행정구역 체계를 도(특별시, 직할시), 시·군(구역),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구역 체계로 조정하면서 면을 폐지했는데, 노동자구는 이때 생겨난 새로운 행정단위이다.

○ 강성대국론

북한이 1998년 9월 5일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김정일 시대의 개막에 즈음하여 제시한 통치 선전구호를 말한다. 이 구호는 사상의 강국, 군사강국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가자는 내용으로 일종의 ‘북한판 부국강병론’이며, 김정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정방향이기도 하다.

### 3.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는 어떤 사람일까?

과거 우리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일으킨 각종 테러와 대남도발의 배후조종자, 독재자라는 나쁜 이미지가 박혀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활달하며 재치있고, 연장자나 여성에게도 배려를 보여주는 부드러운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이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에 혼란이 있었고 그를 제대로 알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는 어떤 사람일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42년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황태자 수업'을 받으며 성장했다. 만경대혁명학원, 평양제4인민학교, 평양제1중학교, 남산고급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 최고의 학교를 다니며, 김일성 주석의 세심한 배려하에 배치된 우수한 교사, 교수 밑에서 지도받으며 성장했다. 심지어 대학시절에는 개인지도교수 그룹 밑에서 당의 사상, 정치이론, 실물경제이론 등에 관한 공부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일찍부터 김일성 주석의 해외여행이나 현지지도를 따라 다니며 국가지도자에게 필요한 일들을 익히고 리더십을 쌓아나갔다.

대학 졸업 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 일을 시작으로 당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당사업 전반을 익혀 나갔다. 특히 그는 선전선동, 영화, 조직지도 부문에서 김일성 주석뿐만 아니라 혁명1세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1973년도에 당 내부에서 이미 권력승계자로 떠받들려지고 있었다. 권력승계자로 공인된 후에는 당중앙위원, 당정치국상무위원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자신의 권력기반을 탄탄하게 굳혀나갔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군까지도 확고하게 장악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현재 공식 직함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외에 노동당 총비서이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수령 자리를 비워두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후대 수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현재 북한 내에서는 당·정·군 모두를 장악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김일성 주석만큼의 카리스마나 숭배의식을 느끼지는 않지만, 북한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이른바 그가 말하는 '통큰정치', '인덕정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억압과 사상통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대남 도발 배후조종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쪽면에 비친 그의 모습이나 북한 언론매체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최근 현상에 나타난 행동만 보지 말고 그의 과거와 앞으로의 태도 등을 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알고 싶어요

#### ○ 국방위원회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주석이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2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1998년 9월 5일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사실상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자리잡고 있다.

#### ○ 고난의 행군

김일성이 항일 무장시기인 1938년 말부터 1939년 봄에 걸쳐 100여 일간 이른바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하여 중국 몽간현으로부터 조선의 북부 국경일대로 진출했다고 선전하는 전투행군을 말한다.

## 4. 북한의 식량난은 왜 생겼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주 어렵게 사셨던 때가 있었다. 소위 '보리고개'라고 부르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 '보리고개'는 봄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서 털 익은 보리를 추수하여 죽 등으로 만들어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그것이 불과 20여 년도 안된 시절의 일이다. 그런데 북한이 요즘 20여년 전 우리가 겪었던 식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에 어려움이 그다지 없었는데, 지금의 식량난은 왜 일어났을까?

첫째는 사회주의식 농업생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서 집단으로 공동생산을 하고 수확 후에 공동분배를 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리 없는데, 북한도 이런 문제를 이미 1980년대부터 겪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주체농법으로 이야기되는 농정의 문제점도 한 원인이다. 주체농법이란 식



대북식량 지원

량생산 위주의 농사법으로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농사법이다. 즉 한 평당 토지의 수확물을 많이 내기 위해 작물을 촘촘히 심거나 과다하게 비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식량증산을 위해 산을 깎아 다락밭으로 만들고, 밭작물을 모두 옥수수 위주로 심는 농사방식이었다. 최근 북한은 주체농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수정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락밭으로 인한 홍수라든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뒤다.

셋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특히 구소련으로부터의 농업원자재에 대한 지원과 도입이 중단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강조해왔지만 식량만은 결코 완전히 자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초 에너지, 기초 농업원자재 등을 특히 구소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과 도입이 중단되자마자 상당한 식량생산의 감소를 가져왔다.

넷째, 경제난에 따른 농업관련산업의 황폐화를 들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비료생산, 농약생산도 절반 이하로 추락하면서 토지생산성이 뚝 떨어지게 된 것이다.

다섯째, 자연재해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다. 북한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연속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입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북한 식량난의 부차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4가지 요인들이 북한의 식량생산 감소에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본래 산간지대가 많은 북한지역의 특성상 식량의 완전자급은 어려우며 상당부분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 당국은 먹는 문제 해결을 항상 주요정책의 과제로 삼고 '의식주'가 아닌 '식의주'를 강조했다. 심지어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말까지 내걸었다. 북한으로서는 언제나 식량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과제였다.

## 5.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 (1) 북한 사람들은 어떤 패션의 옷을 주로 입을까?

북한주민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는 단순한 패션이었다.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9년 4월 김일성 주석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 복장을 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리면서 북한 주민들도 점차 양복이나 양장 차림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에는 옷의 패션,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이때부터 북한의 당기관지나 방송매체에는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져 갔다. 평양시 피복연구소 주관하에 춘추의 류전시회, 평양시 옷전시회 등도 열리고 1995년 4월에는 「세계체육문화축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패션쇼까지 열렸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양장 차림의 북한 여성

적 생활양식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당의 요구 아래 주로 의복의 ‘1차적 기능’ (몸의 보호기능)에 맞추어 옷을 입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의복의 ‘2차적 기능’ (멋의 창조)도 생각하며, 패션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니 스커트나 티셔츠에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한 옷차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행어나 짧은 치마를 입더라도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한 임수경의 영향으로 티셔츠에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한 옷차림을 북한 청소년들도 좋아하지만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라며 단속하는 당국 때문에 입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옷차림이 1980년대 들어 다양한 양복·양장차림으로 변화하고 유행도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로 평양 등 대도시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잠바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이 일반화되어 있다.

## (2) 북한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

북한 지역의 음식은 대체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종류로 나뉜다. 평안도 음식 중에서는 냉면이 유명하며, 함경도는 창란젓, 명란젓, 명태순대, 명태식혜 등 명태를 이용한 음식을 자랑한다. 황해도는 녹두묵채, 보쌈김치, 새우짬, 김치순두부 등이 유명하며, 강원도의 자랑은 특산물인 금강산 송이를 이용한 요리를 꼽는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다양한 지역특산 음식을 요리해 먹기 어렵다고 한다. 주식도 부족하지만 갖가지 종류의 양념과 부식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재료들을 배급제도에 의해 각 직장에서 발급받은 배급

카드를 가지고 국영상점에서 보통 15일마다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나마도 식량난 이후 제대로 안되고, 국영상점에도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우리처럼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음식을 먹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에서 그동안 주식은 쌀이 아니라 옥수수였다. 최근에는 감자도 주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완전히 쌀로만 주식을 삼는 사람은 평양에 사는 일부 특권계층이다.

그래서 북한에는 주식인 옥수수, 감자를 재료로 하는 음식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옥쌀밥, 강냉이밥, 강냉이국수사리, 강냉이농마국수사리, 강냉이올챙이국수사리, 강냉이꿀무떡, 강냉



북한의 대표적 음식인 냉면을 먹는 모습

이무설기떡, 강냉이송편, 강냉이남새빵, 강냉이찜만두, 강냉이구루떡국, 강냉이가루떡국, 강냉이지짐, 풋강냉이지짐, 강냉이묵, 강냉이농마묵, 강냉이쌀엿, 통강냉이엿, 강냉이단묵, 강냉이단지짐... 강냉이로 개발한 음식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최근에는 감자 요리도 300여 가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들 음식 중에는 별식으로 먹는 음식도 있으나 모든 종류의 음식이 주식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이 옥수수, 감자이다 보니 이처럼 많은 종류의 음식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다.

### (3) 북한에 하모니카집이 있다면?



북한의 일반 아파트

북한에서 주택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된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북한의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별도의 저축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청약할 필요도 없다. 그냥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후 기다리면 된다.

대도시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주민들은 보통 방 2~3칸짜리 아파트를, 일부 주민들은 방 1~2칸짜리 하모니카집으로 불리는 연립주택을, 그리고 농민들은 보통 방 1~2칸의 단독주택을 배급받아 살고 있는데,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 갖는다. 다시말해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신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 가옥이나 연립주택·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은 집의 크기에 따라 달리 내야 한다. 이를 주택사용료라고 부르는데, 북한 당국은 노동자나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료는 생활비 지출액의 0.3% 수준이며, 연료비 및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세대당 생계비의 3% 내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우이고, 요사이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대도시의 주택사정은 다른 기초 생활필수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워

주택난이 심각한 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어려워 한 주택에 2가구가 같이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며, 때로는 각 직장이나 협동농장에서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주택의 난방·취사 연료는 대부분 구멍탄, 갈탄, 목재, 농작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석유나 가스연료,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사용하는 난방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나 중소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된다. 전기와 수도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 단수가 보통이고 시간제로 사용하는데, 지방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온수관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다.

우리는 종종 아파트를 '닭장'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데 북한주민들도 공동주택을 '하모니카집' 또는 '토끼집'이라고 한다.

#### (4) 직장생활은 어떤 식으로 할까?

북한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사회주의노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노동의 경우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경우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다. 남성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13시간 중 2시간은 노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가 '작업총화'라 하여 정치학습을 하는 시간이다.

한편 여성 노동자의 경우 남성 노동자보다 출퇴근 시간이 빠르고, 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2번에 30분씩, 1세 이상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1번에 30분씩을 배정하고 있다.

#### (5) 북한 사람들은 언제 휴일·휴가를 가질까?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다르게 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전력사정이 어려워 돌아가면서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 쉬도록 배정하기 때문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 노동자에게는 연간 300일 출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료부족,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휴가는 사회주의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정기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 이후 대부분 공장·기업소가 가동되지 못하여 결근이 잦고 배급중단으로 개인적으로 식량을 구하고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직장 상사에게 뇌물을 주고 장사 등 개인 사업을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는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기휴가 이외에도 휴양권 및 정양권이 있는데, 이는 각 직장마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 주민들도 설날, 추석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나 북한 당국이 정한 국경일인 노동당창건기념일, 김일성·김정일 생일(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날이 명절이다.) 등 공식적인 휴일을 즐기고 있다.

## (6)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족보가 있을까?

북한은 사회주의혁명이념에 맞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대가족제도를 해체하였다.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 집단의 조상숭배 관념은 사라졌다. 또한 호



북한 가정생활의 한 모습

적제도를 봉건주의의 잔재라 하여 없애고 친족범위를 6촌까지로 제한했다.

따라서 북한에는 족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보기에 족보는 봉건시대의 잔재이자 종파주의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새로 족보를 만드는 일도 정권수립 초기에 없애버렸다. 더불어 종친회 조직이나 모임도 자취를 감추었다. 집안의 뿌리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의 신세대들은 자신의 본관이나 집안내력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동유럽 유학 중 우리나라에 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였다. “본관이 어디냐?”는 물음에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한다. 북한 최고의 교

육을 받은 그였지만, '본관'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 O 씨냐?”라는 물음에도 그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었다.

### (7) 북한 주부들이 모두 갖기를 원하는 5장 6기란?



북한 가정의 거실

북한에서는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분의 높고 낮음과 재산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가정생활용품 가운데 이른바 '7기'라고 부르는 TV수상기·세탁기·냉장기·녹음기·사진기·선풍기·재봉기를 전부 갖춘 가정은 당 간부나 극소수의 부유 계층에 불과하며, 대부분 주민들은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보유하는

정도이다.

TV의 경우 대동강 TV공장에서 생산된 20인치 흑백TV의 국정가격이 620원이고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북한제 흑백TV는 12,000원, 중국산은 14,000원, 일본산은 3만 원으로 일반노동자들 월 평균 임금(100원)의 6~30배에 해당하는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

북한은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거주지 인민반의 '가전제품 등록부'에 반드시 등록한 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압수당하고 전기공급도 차단받는다.

일반적으로 세간살이에 대해서 북한 주부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선풍기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 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나마도 생필품과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아주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 (8) 연애결혼이 가능할까? 선호하는 신랑·신부감은?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최근에는 연애결혼을 선호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 전통적 가치관, 사회주의이념,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적 요소들을 혼합하여 선택했다고 한다. 즉 남성의 경우 이상적인 여성 배우자



데이트하는 북한의 남녀

를 "마음씨가 좋고, 소박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 공대 잘하고, 아들·딸 잘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성의 경우 "양심껏 일하고 사려 깊으며 성격이 좋은 사람"을 이상적인 남성 배우자로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최근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결혼에 있어서 남녀간의 사랑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점점 더 물질적 조건들을 많이 따져가는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감의 직업으로 군관, 당·정간부, 기술자

를 희망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운전자·기관사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나, 외화를 만질 수 있는 무역회사 실무자, 외교관이나 유학생처럼 외국에 나다닐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남성들은 배운 여자, 똑똑한 여자보다는 안정되고 돈벌이가 괜찮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호텔직원, 식당접대원, 백화점이나 외화상점의 판매원 등 서비스업 계통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인기가 높다. 외제상품을 구하기 쉬운 데다가 뒷돈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9) 북한도 우리와 같은 명절을 보낼까?



명절 때 윗놀이를 즐기는 모습

북한에서 명절은 우리나라처럼 전통 민속명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 외에 국가경축일, 국제기념일까지를 통 털어서 말하는 개념이다. 설, 한식, 추석 등은 따로 '민속명절'이라고 부른다.

북한에서 가장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날이다. 북한은 이 날들이 최대의 명절임을 부각하기 위해 연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축제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인 설날, 단오, 한식, 추석은 1967년 7월 “봉건잔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부활되었다. 민속명절을 부활한 것은 이산가족찾기사업, 해외동포들의 방문,

1980년대 말부터 부쩍 늘어난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의 우월성' 등의 선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날 쉬면 '대휴'라 하여 내각이 고시한 그 전후의 일요일에 빠졌던 노동을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반쪽 휴일'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냥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신정과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당창건기념일 등을 5대 명절로 간주하며, 다른 명절 때보다 더 많은 특별배급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보내는 고유의 민속명절보다 특별배급이 나오는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를 오히려 더 기다린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 설날 같은 민속명절 때는 성묘를 가는데, 다만 우리처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고 형편에 따라 벌초를 하며 성묘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주민들이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어 우리처럼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 '민족의 대이동'은 없다.

### (10) 여가는 어떤 식으로 보낼까?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국가의 관리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 역시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되어 있다. 휴일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가지기 어려우며, 설령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취미나 오락시설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공휴일에 주변의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이 주된 휴식이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양 주민들은 휴일에 만경대 유희장, 문수 유희장 등 오락시설을 이용하거나 온수목욕이 가능한 창광원에 가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은 관계로 이용이 쉽지 않다. 또한 일부 신



대동강에서 뱃놀이하는 평양 시민들

세대들은 디스코, 포커 등 자본주의적 놀이문화로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지역단위마다 세워져 있는 문화회관의 체육 및 오락시설을 이용하여 여가활동을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보통 많이 즐기는 여가 수단은 집단적으로 관람하는 영화감상이다. 영화감상은 사상교양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은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어서 영화보기를 즐긴다고 한다. 영화관람 후에는 보통 '영화감상모임'이라는 토론회 형식의 집회도 이어진다. 영화의 내용이나 등장인물로부터 본받거나 비판해야 할 점 등을 해설하고, 몇몇 토론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한 후 영화로부터 얻은 교훈을 사업과 생활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결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치선전이나 혁명성이 짙은 영화보다는 남녀간의 사랑이나 주민들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사랑 사랑 내사랑"이나 "길" 등의 작품이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일요일에 만수대 TV에서 방영하는 외국영화의 시청률도 매우 높다고 한다.

그밖에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여가 수단으로는 마작이나 골패 같은 것이 있으며, 가끔 야외에 나가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그리고 제한된 사람들만 그것도 평양 시민들만 즐길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여가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볼링장, 골프장, 노래방 같은 것도 있다.

## (11)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축구, 농구, 마라톤, 탁구 등이며 그 외에는 배구와 권투 등이 인기가 높다.

축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전 지역의 시·군 체육구락부 내에 축구팀이 신설됨으로써 활성화되었고, 각종 국내 대회 개최와 TV중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다.

남자 축구단은 실력에 따라 1~3급 체육단으로 분류되어 선수들은 「공화국선수권대회」(매년 9월~10월 중 개최)의 평가를 통해 차상급 체육단으로 발탁되며, 여자축구팀은 현재 일반·대학팀 20여 개와 고등중학교팀 5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정도로 그 수준이 높은 편이다.

농구는 국가정책에 의해 “농구를 많이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키가 커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며 운동량에도 좋다.”는 이유로 권장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키가 235cm인 리명훈이 등장하면서 그 인기도가 높아졌다. 특히 단일종목 대회로는 흔하지 않게 「8.28 청년컵쟁탈농구경기대회」를 신설(1997.8)하는 등 농구의 육성·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농구 수준 또한 아시아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높아졌다.

마라톤은 북한 주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



남북축구경기 장면

의 하나로서 국가적으로 장려되었으며 뛰어난 선수도 많이 배출되었다. 특히 정성옥 선수가 1999년 8월 스페인 세비아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인기종목으로 부상하였다.

탁구는 전 지역에 걸쳐 조직되어 있는 수백 개의 탁구구락부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 특히 구기종목 사상 최초로 남북한 단일팀을 결성하여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축구와 더불어 남북한 체육교류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2)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가요를 부른다는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 우리의 대중가요가 널리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방문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사회에 우리의 대중가요가 전파되는 경로는 해외동포 특히 중국의 연변동포, 일본에서 온 북송교포 그리고 KBS의 사회교육방송을 통해서이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로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당신은 모르실거야', '사랑의 미로' 등이며, 이외에도 분단 이전에 유행했던 '황성옛터', '봉선화' 등이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위층들도 연회석상에서 가끔 부르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 청장년들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특히 '흘러간 노래' 한두 곡은 잘 부를 정도로 우리의 노래가 북한에 전파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북한에서는 우리의 대중가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연히 부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은밀히 불려지고 있으며, 곡은 그대로 살리고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 주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중국 조선족의 노래(일명 연변가요) 정도로 알고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넘어온 북한 이탈주민들 중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우리의 대중가요였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에 살 때 우리 신세대 가수들의 랩음악도 일부 알고 있었다고 한다.

### (13) 북한 사람들도 공중전화를 이용할까? 휴대폰은 있을까?

현재 북한에는 110만여 회선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전화보급률이 낮다. 그것도 공공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용 전화는 10% 정도에 불과하여 집집마다 전화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전화가 있는 집은 대개 한 동네의 고위 당·정간부 집이라고 한다.

공중전화는 평양이나 청진 등 대도시 지역에는 시내 주요거리와 백화점,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 지역에는 우리 우체국에 해당하는 체신소에 2~3대씩 가설되어 있으며, 군단위 이하 리·동 지역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관이나 기업소를 찾아가 비치된 대장에 용건을 기재하고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공중전화 기종은 다이얼 자동식과 수동식 두 종류가 있는데, 평양은 자동식이나 기타 지역은 전화교환원이 상대방을 접속해 주어야 통화할 수 있는 수동식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통신케이블이 노후하여 감도가 불량하고 잡음이 들리는 등 통화상태가



북한의 공중전화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최근 평양에는 전화기가 대부분 다이얼식이지만 버튼식 전화기도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고 한다.

공중전화는 10전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3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처럼 카드식은 없다. 특이한 것은 공중전화소에는 전화번호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말하는 '반환버튼'은 '돈 나오게 하는 누르개'라고 써 있다.

전화가 많지 않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전보를 치며 전화를 꼭 써야 할 경우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지만, 전화 있는 가정이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장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다.

북한에 이동전화 회선이 500회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진·선봉경제특구에만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사이에 휴대폰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14) 북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평양의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무궤도 전차가 중심을 이룬다. 승용차는 극히 제



평양 지하철

한되어 있고, 1980년대 말 이후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에 따라 택시가 도시 교통의 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 수는 600~700대 정도에 이른다고 하며, 여성 택시운전사도 있다고 한다. 이나마도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본 요금

은 6원이며, 1km 당 1원씩 추가된다. 그리고 야간에는 심야할증이 되어 2원씩 올라간다.

북한의 대중교통 중에서 평양의 지하철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지하궁전'이라 부른다. 현재까지 2개의 노



북한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선(남북노선 14km, 동서노선 20km) 34km로 되어 있고, 지하 100~150m에 건설되어 전쟁 등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든 역의 지하승강장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철 내부는 대단히 화려하며, 승차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회 편도 이용에 10전이며, 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10전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된다.

궤도전차는 만경대에서 사동구역 송신주차장에 이르는 제1노선 외에 2개의 노선이 더 있다. 버스는 시내 변두리에서 인근 교외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1989년부터는 대동강에 여객선이 오고 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출퇴근 및 여행객 수송으로 이용되고 있다. 평양-남포를 오가는 영광호와 평양1호 등의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다.

그밖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에 갈 때에는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 간격을 잘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니라고 한다. 최근 북한에는 석유부족으로 '목탄차' 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이를 대중교통수단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는 교통체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차가 적어 교통체증은 없지만 우리와는 또

다른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평양시민들도 교통지옥을 겪는다고 한다.

### (15) 북한에도 각종 범죄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범죄가 많을까?

우리는 북한의 경우 국가가 철저히 사회를 통제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당국 역시 지금까지 북한은 “범죄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도 자본주의사회와 다를 바 없는 범죄유형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그 빈도가 커져가고 있다. 다만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론 사회주의적 도덕을 강조하고 실제 많은 주민들이 이 도덕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반김일성분자’, ‘반당종파분자’, ‘반혁명분자’로 분류되는 정치사상적 범죄였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직장에 나가봤자 공장도 안돌아가고 월급도 잘 안나오며 배급도 잘 안되자 경제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절도, 암거래, 가짜물품 거래, 주택 불법임대, 퇴직후 자영업 종사, 밀수, 국가재산 횡령 등등 새로운 경제범죄 유형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떠도는 청소년도 늘어나면서 역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소매치기나 패싸움을 하는 청소년범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뇌물과 부정도 북한사회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범죄이다. 주민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주로 ‘생계형 범죄’라고 한다면, 당·정관료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부패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 6.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 (1) 북한의 교육체제도 우리처럼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을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데, 북한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7년으로 초등교육 단계에서 우리보다 2년이 짧다. 여기에 유치원 높은반 1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포함하면 (1)-4-6-4(7)제라고 할 수 있다.



인민학교 학생의 수업 모습

중등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전기 중등교육 3년과 후기 중등교육 3년으로 구분하는데, 북한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과거에는 고등중학교를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고등중학교 6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는 우리의 농업·공업·상업 학교 같은 실업고등학교가 없다.

북한에서 기술교육은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기술자 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직업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을 일찍부터 차별하여 노동자로 만들고 천대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은 북한의 학제로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 만일 유치원 1년과정을 쳐주면, 고등중학교 5학년이 된다.

## (2)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도 우리처럼 국어, 역사, 한문,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등을 공부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정치사상과목이 있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혁명활동', '공산주의 도덕' 등의 제목을 가진 과목이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여학생에게는 여학생 실습과목이, 남학생에게는 공작실습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과명	학 년					
		1	2	3	4	5	6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 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2	2	2
3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혁명활동	1	1	1			
4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2	2	2
5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니 혁명력사				1		
6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7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	1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20	미술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여)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주 : 북한 교육성의 1996년 과정안을 바탕으로하여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 (3)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북한에서 보통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7시 30분이다. 주변은 이보다 더 일찍 등교해야 한다. 지각을 하면 학교에서 벌칙으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청소를 시키기도 한다.



등교하는 고등중학교 학생들

8시에 수업을 시작하여 오전에 5~6교시까지 수업을 한다. 우리처럼 매 수업시

간 이후 쉬는 시간은 10분이며, 2교시 후에는 '수업간 체조'라 하여 체조시간이 30분 있고, 오전 수업이 끝나면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거나 집이 가까운 학생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2시에 오후 수업을 시작한다.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 이후에는 담임교원의 지도하에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하는 일일 또는 주간 생활총화시간을 갖는다. 생활총화시간 이후에는 과외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년단이나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이 작성한 월별·주별·일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당정책 계몽선전활동, 학교주변 청소와 같은 보건 위생활동, 그리고 고철 수집 등 외화벌이를 위한 근로봉사에 동원되고 사상교양을 위한 영화나 시 감상모임 등에 참석하게 된다. 보통 저녁 5시가 되어야 이러한 활동이 모두 끝나 집으로 돌아가 저녁식사를 하게 되며, 집안청소, 맬감마련 등 크고 작은 집안일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가생활을 할 여유가 별로 없다.

청소년들의 TV 시청은 TV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TV가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 청소년들은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하는 아동만화영화를 즐겨본다. 자식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저녁시간에 자식들의 숙제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 (4)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예전에 북한의 연간 학사일정은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여 이듬해 8월에 한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4월을 신학기로 하고 있다.

특징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가 모두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주당 수업시수가 감소(36-36-36-32-29-25주)하고, 실습·노동·조직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간 학사 일정〉

학 기	월	학 사 일 정
상(반)학기	4	상학기 수업
	5	
	6	여름방학(7월하순-8월)
	7	
	8	
하(반)학기	9	하학기 수업(9월초-12월말)
	10	
	11	겨울방학 (고등중학교 1-3학년 : 1월초부터 2월중순 고등중학교 4-6학년 : 1월 한달간)
	12	
	1	하학기 수업 계속 (겨울방학 후-3월 마지막 전주) 봄방학(3월 마지막 주를 전후하여 약 10일간)
	2	
	3	

## (5)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북한의 학생들은 우리보다 시험 보는 것이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해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교과목을 일정 주기마다 시험을 치러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은 반드시 시험을 통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학력평가는 학기말시험, 연말시험 및 1년에 2~3회에 실시되는 부정기 시험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각 시험은 주관식으로 “무엇에 대하여 논하라.”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 교과목은 낙제를 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교사들도 학생들의 일반 학과성적에는 관대한 편이나 ‘혁명력사’, 김일성·김정일 문헌학습 등 사상학습과 관련된 과목은 낙제시 엄중한 자아비판을 받는다.

또한 북한에서는 교육성 주관으로 각 학교별 차이를 점검하는 ‘총평’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있으며 시·도 인민위원회 교육국 등에서 학교별 비교를 위한 시험(학과 경연)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과 경연은 보통 3개월마다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 ‘소조’를 조직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 성적에 대한 종합평가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시험을 포함하여 학과토론, 실험실습, 학과논문, 사회정치활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적부에 학력점수와 생활점수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학력점수는 5(최우등: 시험문제·시험관 보충질문 모두 답변), 4(우등: 시험문제 모두 답변, 그러나 시험관의 보충 질문 답변 못함), 3(보통: 시험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답변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완전히 답변), 2~1(낙제: 시험문제 가운데 한 가지도 답변하지 못하거나, 시험문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답변 못함)의 5단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점수는 '모범/락후'의 2단계로 기록한다.

한편 유급은 인민학교의 경우 국어, 산수 성적이 3점(보통) 미만이면 특별 과제를 주어 다음 학년 초에 재검하여 결정한다. 고등중학교는 3점 미만의 과목이 3과목 이상이면 유급당하게 되어 있다. 유급은 두 번까지 가능하며 세 번 이상일 경우 퇴학당한다.

#### (6) 북한 청소년들은 과외활동을 어떻게 하나?



과외활동 중인 고등중학생들

과외활동에 대한 개념은 남과 북이 같지 않다. 우리가 사용하는 과외활동이란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개발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과외활동은 혁명인재의 양성과 노력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과외활동의 내용도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은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입단하여 모두 조직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조직을 통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소년단은 인민학교 2학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의 학생들이 가입하며, 주로 정치사상 교

양, 생산노동, 생활총화 등에 참여한다. 생산노동으로는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 하여 토끼 기르기, 파리 잡기, 소년단림 가꾸기, 각종 폐품 수집 등을 한다. 고등중학교 5학년부터 가입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의 활동은 공산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정치사상 학습, 노력동원, 생활총화 등에 참여하여 정치학습을 받고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참여한다.

과외활동도 요일과 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사상학습, 화요일은 과외체육, 수요일은 소조활동, 목요일은 소년단·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날, 금요일은 대청소, 토요일은 주생활총화와 같이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외활동이 모두 집단활동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는 혁명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김일성 일가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혁명사적지와 전적지를 찾아 답사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혁명 사적지가 있는 백두산에 답사를 가는데, 항일유격대식으로 행군을 하며 이런 혁명유적지 답사 행군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7) 북한에도 우리의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북한도 우리처럼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각 도에 특수학교들을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의 특수목적고와 유사한 면도 있다. 인민학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는 제1고등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교육을 위한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등이 있다.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 특기자들을 위한 예·체능 전문학교도 있으며,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도록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클릭

알고 싶어요

#### ○ 제1고등중학교

각 도(직할시)·시·군·구역까지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1984년 9월 평양 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현재 200여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영재를 배양하는 기지”가 되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일류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 ○ 만경대혁명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가족사에 집단 수용되어 사관학교식 교육을 받는다. 이 학원 학생들은 졸업 후 각급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지휘관으로 성장한다. 이 학교 외에 6.25 전쟁 희생 장병의 유자녀들을 위한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해주혁명유자녀학원 등이 있다.

#### ○ 예·체능계 특수학교

북한에서 예술·체육 등의 예·체능계 학교는 11년제의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등과 4년제 체육학교, 공예학교 등이 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조기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로서 학생들은 엄밀한 신원 조사 이후 선발된다. 핵심계층 자녀가 아니면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평양외국어학원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10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 (8) 수능시험이 있을까? 재수생도 있을까? 속칭 일류대학은?

북한학생들은 고등중학교까지는 경쟁 없이 자동적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입학은 사정이 다르다. 대학은 아무나 입학하게 되어 있지 않고 당·정간부 자제, 당원 자제, 혁명유자녀, 인민군출신, 특별히 성적이 좋고 재능이 있어 뽑힌 학생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학생들만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우리보다 경쟁률이 높은 대학도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내각 주최로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봄에 시험을 치르며 각 시·도·군 단위로 등수가 발표된다. 일종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셈이다. 이 성적을 기초로 내각 교육성에서 시·도·군 단위로 각 대학에 몇몇씩 배정하고, 수험생들은 배정받은 대학에 가서 다시 본고사를 치른다.

시험과목은 혁명력사를 비롯한 수학, 물리, 외국어, 신체검사 등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최종적으로 면접을 치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자를 '직통생'이라고 하는데, 전체 합격자의 30% 정도이며 나머지 70%는 통상적으로 제대군인, 직장 소속자이다. 그래서 북한의 대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다.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평양이과대학, 공과부문은 김책공업대학, 어학계통은 평양외국어대학 등이 꼽히고 있다.

일류대학이라면 단연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대학을 나와야 출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현재 북한의 당·정 차관급 이상

고위간부의 70% 이상이 이 대학 출신들이다. 이들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은 출신 성분이며 재학생 1만 2천 명 가운데 중앙과 지방 당·정·군 중견 간부 이상의 특권층 자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9) 북한의 교육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북한의 교육에서 정치사상 교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지식들을 교육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규범이나 인간됨됨이에 대한 교육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남과 북의 교육은 전통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지극하고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출세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에서 우리의 전통적 교육관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형제간의 우애도 강조한다. 북한의 부모들도 교육에 대한 열성이 매우 높아서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남북한의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의 성장과 출세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같다.

북한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은 출세가 출신성분이나 충성도에 의해 거의 좌우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교육이 출세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도 남아선호사상이 있어서 자식들 중에서도 남자에 대한 기대가 높고 남자에 대한 보살핌이 더하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는 학교현장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높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거나 체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교사들의 권위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 즉 우리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함양하는 것이 교육목표인 반면, 북한은 그들의

헌법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이라고 밝힘으로써 개인보다는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 (10) 북한 청소년들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까? 오락게임도 있을까?

북한의 컴퓨터 보급실태는 그리 높지 않다. 우선 광케이블망 자체가 전국 60여개 시·도·군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 생산 자체가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



북한 청소년들의 컴퓨터 학습 장면

보급도 주요 국가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다룬다는 것은 극히 제한된 고위간부 자제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제1고등중학교마다 컴퓨터교육 과정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일부 학교에서는 접할 수는 있다고 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생산은 부진한 실정이지만, 평양이과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평양·함흥 컴퓨터기술대학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으며, 평양정보센터나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이 가장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인식시스템 관련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에서 마이크로 말을 하면 정확히 글

자가 모니터에 입력되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선보여 우리측 방문객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으며, 바둑 프로그램은 세계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도 하였다.

오락게임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가 개발한 '청개구리' 시리즈와 '드래곤'인데, '드래곤'은 울타리 안을 달리고 있는 공룡을 쏘아 잡는 게임이라고 한다. 이밖에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 많은 게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

### (11) 우리처럼 팬클럽을 만들고 열광하는 연예인이 있을까? 오빠부대는?

연예인을 북한에서는 '대중예술인'이라 부른다. 우리처럼 북한에서도 유명 대중예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일반 주민들과 다른 대우와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극영화 '꽃파는 처녀'에서 주인공 꽃분이 역을 맡았던 홍영희나, 영화 '도라지꽃'의 주연을 맡았던 오미란은 둘 다 인민배우 칭호를 얻은 인기스타이다. 오미란은 북한이



공연배우들의 무용 장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제작, 발표중인 시리즈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도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다. 남자배우로는 역시 '민족과 운명'에서 박정희역을 맡았던 김윤홍, '림 깎정'의 주인공이었던 최창수 등이 인기 배우이다.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일부 가수들은 극장이나 문화회관 등에서 독창회를 갖기도 하는데 이것은 남한의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와는 다르며 그것도 매우 드물다. 북한에서 인기 있는 대중가수로는 '휘파람'을 부른 전혜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자음악악단이 생겨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컨대 보천보전자악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신디사이저와 같은 전자악기 뿐만 아니라 전통악기도 혼용하고 있으며, 성악이나 무용분야의 전속배우와 합창단도 두고 있다. 히트곡 '휘파람'도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열성적인 '오빠부대'는 없지만 연예인을 좋아하고 표출하는 마음은 같다고 한다. 하나의 예로 예술잡지나 화보에 실린 전혜영이나 오미란의 사진은 어김없이 오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오려진 사진은 책상 서랍에 고이 간직하거나 기숙사 방 벽면에 붙여진다. 북한에도 팬 레터가 있다고 한다. 팬 레터를 그들은 '성과편지'라고 하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신세대들은 인기스타들에게 공연축하 성과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성과편지를 가장 많이 받은 스타로는 역시 북한 최고의 미인이라고 찬사를 듣는 영화배우 오미란인데,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은 것 같다.

## (12) 북한에도 야간자율학습이 있을까?

북한에서도 시험 때가 되면 방과 후 교실에 갇혀 저녁 늦게까지 집체학습을 한다. 45분 짜리 수업 4~5시간이 끝나면 보통 오후 1시경이 되는데 45분간 쉼 가지고 간 곱밥(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이때부터 집체학습이 시작된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부르며, 집에 딱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게만 조퇴를 해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다.

선생님도 교실 문턱에 앉아 문을 지키며 자기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아다니며 공부를 도와 주기도 한다. 45분이 지나면 다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집체학



학생들의 자율학습

습이 계속되는데, 저녁 6시나 7시까지가 보통이고 시험이 임박하면 밤 10시~12시까지 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열심히 문제도 풀고 외우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도 하며 다른 소설책을 보거나 잡담하는 일도 많다.

집체학습에는 이렇게 무작정 잡아두는 방법 외에 일정한 문제와 시간, 공부량을 정해

주고 그때그때 시험으로 검사하면서 시키는 방법도 있다. 또는 담임선생이나 전공과목 담당교사가 시험문제 내용을 한 문제씩 차례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 (13) 북한 청소년문화에도 서구식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을까?

1980년대 이후, 특히 1989년 평양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된 이후 북한주민들의 생활 속에는 서구식 문화가 침투되기 시작하였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북한 청소년 문화속에는 서구식 개인주의 문화도 차츰 번져가고 있다.

서구형 생활양식을 따르려는 것은 복장, 머리모양 등 외형적으로도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특별한 정치집회나 노동현장에서 인민복을 입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양복과 양장 차림을 하기도 한다. 1990년대 초에는 청바지와 바지치마, 쫄대바지(쫄바지), 외국어가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는데, 199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착용을 금지시킨 이후 사라졌다고 한다. 청바지는 미제국주의,

바지치마는 일제가 만든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금지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 활동하기 간편한 바지차림을 주로 하며 한복은 특별한 행사 때 입는다. 그리고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장발 등 특이한 머리 모양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목격되고 있으며, 중국의 보따리상이나 재일교포 등을 통해 유입된 우리나라나 서구의 가요 테이프, CD, 비디오 등도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서구형 자본주의 문화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이 이를 “얼빠진 사고방식” 또는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유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상교양 캄빠니아(캠페인)’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 (14) 노래방은 있을까?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도 청소년 전용의 노래방이 있다고 한다. ‘화면반주음악실’로 불리는 노래방이 평양에 처음 설치된 것은 1990년대 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평양 청년중앙회관에 250석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 노래방은 청년중앙회관 대중정치교양과에서 운영하는데, 이곳을 주로 찾는 이는 근로청년,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등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는 편이다.

이 노래방에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보천보전자악단이 취입한 수 십 곡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게 음정과 박자, 음색을 자유롭게 조절한 후 노래를 부르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추어 이중창을 하기도 한다.

또한 노래 반주를 화면과 함께 보내는 조정실이 따로 있어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번호를 누르면 조정실에서 반주와 영상을 내보낸다. 가사는 화면 하단에 푸른색 글자로 나타난다. 특히 노래하는 사람의 박자나 음정이 틀리게 되면 전문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와

이를 바로잡아 주고 다시 사라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무대 조명은 물론이고 노래하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다.

물론 우리처럼 30~40평 규모의 대중적인 노래방은 아직 없다.

### (15)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만화영화 "영리한 너구리"의 한 장면

북한 역시 우리처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만화영화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것은 대부분 영화들이 김일성·김정일을 미화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 것이 주류지만 만화영화는 주로 전래동화나 우리 역사, 동물들을 주제로 교훈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영화를 컴퓨터합성 등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만화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수 백 명의 만화가들이 손으로 그린 다음 그것을 합쳐 만화영화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화영화들은 컴퓨터로 합성한 영상물보다 더 생동감이 있고 재미있어 북한 사람들은 만화영화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고 한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영화는 '소년장수'와 '영리한 너구리'이다.

'소년장수'는 1부에 약 25~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오랑캐가 침입해온 시기, 15세

의 소년이 무술과 재주를 익혀 임금이 인정하는 장수가 되어 오랑캐와 싸워 물리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것이 주제이다.

‘영리한 너구리’에서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가 짧은 너구리는 생김새는 웃기지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날쌔돌이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너구리는 높은 막대기의 높이를 재어 오는 경기에서, 토끼가 줄자를 가지고 그 높은 막대기에 기어오르는 것을 한심하게 비웃고는 삼각자와 콤팩스, 그리고 직선자를 가지고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높은 곳까지 오르지 않고도 먼저 높이를 재어 돌아옴으로써 경기에서 이긴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만화영화는 물론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써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데, 동물을 캐릭터로 한 북한의 만화는 이러한 교양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밖에 북한사람들은 외국의 만화영화도 즐겨 보고 있다. 평양사람들만 시청할 수 있는 만수대텔레비전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외국영화와 함께 외국 만화영화도 방영하는데, 이 코너에서 디즈니 만화인 ‘톰과 제리’가 방영되어 높은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 (16) 북한 청소년들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까?

북한에서 청소년들간의 이성관계는 우리처럼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귀게 되어 있지 않고, 또 북한사회 자체가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습을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이성관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학교와는 달리 고등중학교 대부분은 남녀혼합반을 하는 경우가 없다. 특별한 곳이 있다면 일부 산골학교에서 학생수가 적은 경우이고, 남녀공학 학교라도 남학생

반과 여학생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학생들과 이성교제를 시도하는 남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학생은 부모가 간부이고 권력이 있으며 학급에서 학생간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

### (17) 왕따나 공주병이 있을까?

북한에도 '왕따'나 '공주병'과 같은 현상은 있다고 한다. 왕따나 공주병의 대상은 우리처럼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 간에 많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오래가지 않고 금방 친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교사들이 특별히 좋아하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왕따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왕따를 당하면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한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경우 우울증과 같은 것은 겪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도 않으며, 우리처럼 자살 같은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7. 북한은 변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을 많이 방문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이 1980년대 다르고 1990년대 다르고, 1990년대도 1995년이 다르고 1997년이 다르고 또 올해도 다르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 사회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고, 획일적이고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북한은 정치적으로 보면 수령절대체제라는 모습에 변함이 없으며 집단주의 생

활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여전히 군사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개혁·개방도 거부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부 경제활동에 시장 경제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서 국가요구량을 상납하고 남은 농작물의 일부를 자유롭게 판매하게 한다거나, 공장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고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하여 수익을 내도록 요구한다거나, 텃밭이나 개인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개인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소유 범위를 늘려주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진·선봉 경제특구도 만들어 이곳에서는 아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금강산도 일종의 관광특구로 개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하던 방식에서 조금씩 아래로 권한을 주며 외부세계와의 경제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한반도 위기의 골칫거리였던 핵이나 미사일 개발 중지를 밝히고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과도 관계 개선을 찾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필리핀, 호주 등과는 벌써 새롭게 수교하고 있으며, 기타 서방 국가들과도 수교를 넓혀가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경제제재 해제를 얻기 위해 그동안의 테러국가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급제의 붕괴로 주민들 생활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하고 주민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적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개인주의·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개인적 경제활동의 증가로 북한사회에도 우리의 벼락

부자와 같은 '갑작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역이동이 많아지면서 바깥 세상의 정보가 북한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주민들로 하여금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더 갖도록 하고 있다. 방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도 북한이 살길은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나오는 길이라고 은밀히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경제난을 회복하는 길은 개혁·개방이지만, 그렇게 하면 체제자체가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북한식 변화'의 길을 찾으며 조심스럽게 외부세계와 우리를 향해 노크를 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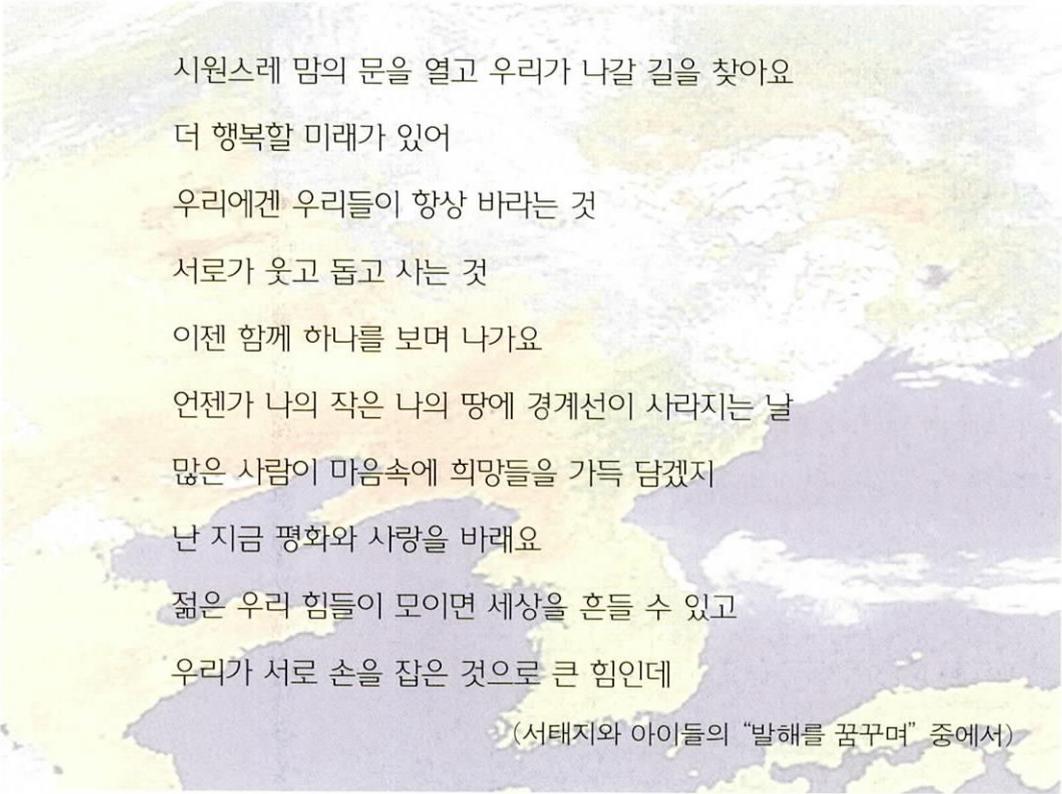


# III

## 하나됨을 위하여

1. 왜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것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이젠 함께 하나를 보며 나가요  
언젠가 나의 작은 나의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중에서)

## 1. 왜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 (1)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분단 이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휴전중인 상태로 살아왔다. 휴전중이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중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약고로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지역으로 쪼뿔고 있다. 155마일의 휴전선에 중무장한 200만 가까운 군대가 대치된 상태에서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그것도 재래식무기서부터 최첨단무기까지 총집합되어 항상 장전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야말로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며 우리가 이룩한 삶의 터전이 언제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과거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휴전 중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계속 신무기들을 구비해놓지 않으면 안된다. 또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낭비적일까? 통일은 이러한 낭비 자체를 없애주는 일이다.

한편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분단은 우리 사회 내부에 비평화적인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이념논쟁을 늘 야기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든지 인간사회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세대 갈등, 성(性) 갈등, 지역 갈등, 조직 갈등, 계층 갈등들 외에 이념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덧붙여 있다. 그래서 지난 몇 십 년간의 사회발전과정을 보면 국가역량을 낭비시키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삶의 평화가 간혹 흔들리기도 했다. 통일은 이렇게 이념의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삶의 비평화적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한 동포로서의 삶을 위하여

눈물로 지새우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

눈물로 지새우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강산애의 “라구요” 중에서)

부모자식간, 부부간, 형제간이 단지 이념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이산의 아픔,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아픔이 어떤 건지 지난 8. 15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지켜볼 수 있었다. 치매로 정신이 나가 있었던 어머니가 그림던 맏아들의 이름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정신을 잠시 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담아두고 있었으면 잠시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우리 모두는 이 모습을 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천륜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전통적인 가족주의 사고가 적다고 알려진 N세대들도 이 러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보고 ‘가족의 고귀함’이 일깨워졌다고 말한다. 한 청소년은 “외아들이니 집에서 떠받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을 전하는 TV에서 본 네 줄기 굵은 눈물이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형

제의 소식도 모른 채 50년을 떨어져 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랑해요. 부모님, 누나들!”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8.15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은 우리 사회의 세대간, 가족간에 파여 있는 골을 메우는 ‘부수효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왔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한 핏줄들이었다는 것, 한 동포였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은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이산가족들이 통곡으로 보여주었던 이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끊어졌던 한 가족사를 연결하고 나아가서 민족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룩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 분단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을 하면 어려운 북한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 말해서 경제적·사회적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되니까 통일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은 골치 아픈 통일보다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에서처럼 평화와 사랑에 바탕을 둔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북한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부담을 느끼는 통일비용은 뒤집어놓고 보면 또 다른 미래 국가상을 만들어가는데 들어가는 투자비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에는 통일비용 부담이 큰 비용으로 보이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사이므로,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그 대신 분단비용을 치르고, 분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단비용이 더욱 늘어나 오히려 통일비용보다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분단비용이란, 말 그대로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 즉 통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비용에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군사비, 체제경쟁 비용 외에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국가역량의 낭비에 따른 비용, 전쟁의 공포로 인한 비용 등등 엄청난 비용들이 있다. 지난 55년 동안의 분단비용을 계산해 보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분단비용은 통일 이후 들어가게 될 통일비용을 훨씬 넘는 액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통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만큼 분단비용이 절감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은 이렇게 분단비용을 절감시키는 것 외에 오히려 통일을 하면 유무형의 '통일편익'도 가져다 줌을 알아야 한다. 통일편익이란 통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들을 말한다. 즉 체제경쟁비용이라든가 군사비 같은 분단비용의 해소, 평화가 얻어짐에 따른 이익, 더 큰 규모의 경제가 이룩됨에 따른 경제적 이익, 남북한 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됨에 따른 이익, 대륙으로 연결됨에 따른 이익,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 위상이 높아지게 됨에 따른 이익 등등을 말한다. 아마 이러한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로 인한 통일비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분단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단이 지속되면 통일 후 얻게 될 통일편익도 얻지 못하게 됨을 생각하여야 한다.

#### (4) 문화·복지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분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크게 심화시켰다. 남북한의 차이, 즉 이질화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마저 혼란에 빠뜨려 갈라져 사는 것을 점점 더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도의 섬으로 떠있는 현재의 우리 국가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남북한의 문화적 장단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선진적인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문화예술에 있어서 민족적 요소를 보존하려는 측면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유하고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는 국가의 경쟁력을 단순한 경제경쟁력을 넘어 문화적 경쟁력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사회로 돌입하면서 그 국가 고유의 문화가치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로 남북한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장점들을 한데 합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풍부한 문화예술상품들을 가지게 되고 문화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합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두 배의 국가역량을 가져다 주고 사회복지수준을 높여 줄 것이다. 북한은 매년 총 GNP의 25% 이상을, 우리나라는 예산의 20%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일 통일로 통일독일처럼 군사비를 GNP의 1~2%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남북이 출혈적으로 지출해왔던 군사비는 교육과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 질 좋고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져 한반도 전체의 경제경쟁력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통일은 국내시장 규모도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영역을

우리 시장권으로 편입시켜 경제규모 자체를 다른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한반도를 들여다보면 북쪽에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산물이, 남쪽에는 넓은 평야와 풍부한 농업생산물이, 그리고 북쪽에는 훈련이 잘된 질 좋은 노동력, 남쪽에는 높은 자본축적과 기술이 풍부한 형태로 편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남과 북은 합쳐져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상호보완성이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 있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의 상호보완성을 결합하여 민족역량 자체를 높이게 될 것이다.

### (5)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단은 한반도 남쪽으로 우리 활동의 영역을 좁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안목까지도 좁혀 놓았으며, 우리의 역사무대를 한반도 남쪽으로 한정시켜 놓았다. 본래 우리의 역사와 활동 영역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심성 또한 '대륙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분단은 우리를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반도적 사고틀에 갇히게 하였으며, 우리 개개인의 가치관, 상상력도 반도적인 것으로 왜소화시켜 버렸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의 활동영역을 만주, 중국대륙을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 나아가서 유럽대륙으로까지 연결시켜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세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유럽이나 미주 대륙의 청소년들은 각 나라가 국경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로 연결된 이웃 나라들을 오직 기차표 한 장을 끊어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며 성장한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언어들도 익히며 자기 인생의 무대를 자기 나라로만 한정짓지 않고 인접한 여러 나라도 포함시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기 나라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웃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휴일에는 자기 나라에 와서 여가를 즐기는 식

으로 생활한다.

통일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수학여행을 북쪽의 금강산이나 백두산,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과거 말 타고 달렸던 만주대륙에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경의선 복구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타고 유럽대륙으로 배낭여행도 가게 될 것이며, 생활무대도 넓혀 줄 것이다. 21세기는 모든 분야에서 국경선이 사라지는 네트워크 시대로서 세계인적 사고를 요구한다. 통일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러한 대륙으로의 네트워크를 복원하여 '나'를 세계인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 (1) 사실상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독일 공영방송 ARD의 한국 주재 지국장은 “통일에는 교과서가 없다.”며, “독일은 1970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20년이 지난 1990년에야 통일을 달성했지만,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 성급한 기대나 낙관보다는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 주었다. 그의 이 조언은 어느날 갑자기 ‘통일의 그날’을 만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접근을 통해 화해·협력의 과정을 거쳐 통일해야 통일의 후유증이 적어진다는 조언이었다.

즉 법적·제도적인 통일 이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란, 서로 두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오고 가며 교류하고, 상호의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법이나 제도는 통일되지 않았지만, 생활영역에서만은 분단된 두 지역 주민에게 분단이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고 생활공동체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 경계선은 있지만 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적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하여 평화공존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동·서독은 20년 동안 이런 상태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였다. 이산가족 만남이나 서로의 지역을 여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으며 서로의 방송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다. 또 경제교류도 활발하여 서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이 때문에 법적·제도적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자마자 빠른 속도로 합쳐질 수 있었으며, 통일 이후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나마도 그 후유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북한은 50년 넘게 서로 적대와 불신 속에서 살아왔으며, 심지어 아직도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법적·제도적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독일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그 이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다지는 협력관계의 구축과 평화공존의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 (2) 마음의 통일을 위하여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고 심지어 동독 사람들의 개인 소득이 통일되기 이전 서독사람들의 1/3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의 가슴에 많은 분단선이 남아 있다고 한다.

서독사람은 동독사람을 ‘오씨’ (OSSIS, 동독 촌놈)라 부르고, 동독사람은 서독사람을 ‘베씨’ (WESSIS, 서독 졸부)라고 하며, 통일 당시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외쳤던 마음이 오히려 사라져 갔다고 한다. 이는 마음의 통합이 그만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통일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통일 이전에 마음의 통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서로 다른 상이한 문화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질적 문화의식으로 인한 행동양태를 우리가 배타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애로를 호소한다. 따라서 통일 준비로서 남북한간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남북한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자세이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분단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 속에서도 문화는 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남과 북은 서로 이질적인 정치 경제체제 속에서 반세기 동안 달리 생활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질적인 면 못지 않게 큰 이질적인 면을 갖게 되었는데,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을 이루려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북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많은 사람

이 후회하는 통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통일한 나라들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지금부터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은 북한의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 (3) 평화지키기에서 적극적 평화만들기로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데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즉 군사적 대결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여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것만으로도 생각해 왔다. 즉 수세적 입장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만을 평화라고 생각해왔다. 이것은 ‘평화지키기’(peace keeping)로서 소극적 차원의 안보개념이다.

그러나 평화는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강력한 평화의지를 가지고 호전적인 상대방에게 평화의지를 갖도록 유도하고 대결되어 있는 서로의 관계를 상호협력 및 상호의존 관계로 바꿈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곧 ‘평화만들기’(peace making)라고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활발한 교류협력에 의해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생존전략 자체를 변경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능동적 차원의 안보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평화 만들기’에는 ‘평화 지키기’가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남북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우선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평화는 지키는 가운데 만들어 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과 ‘남북한 화해·협력을 활발

히 하는 것' 두 가지를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인식하며 이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4) 한반도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나아가기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경제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경제발전을 일구어 왔다. 즉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해 왔고,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북한은 196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이후로는 9년 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경험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거의 연 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최근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 예를 들면 1999년을 기준으로 총국민소득면에서 남과 북의 차이가 26:1이나 되고, 무역규모면에서는 178:1이나 될 정도로 그 차이가 벌어져 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걱정하는 대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서독 경제력 차이가 총 GNP면에서 4:1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비용이 지난 10년간 연 평균 우리 화폐로 80조 원 이상 들어간 사례를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나친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 그 이유는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일이란 서로 함께 사는 것이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균형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역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합'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사전에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활발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경제력 차이를 줄이고 한반도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통일국가의 힘은 바로 한반도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 속에서 부강해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5) 주변국들의 협력과 뒷받침을 통일의 서까래로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이 결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의 대립, 즉 냉전체제의 출발이라는 국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물론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 내부의 갈등도 한 요인이고, 민족상잔으로 인해 그 분단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분단 자체가 강대국들간 국제정치 게임의 산물이기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민족간 화해 못지 않게 주변국들을 우리 통일의 협력자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주변국들은 각자 자신의 국가이익에 따라 한반도내 통일국가의 등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경제력, 정치역학관계의 새로운 변수로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민족의 역량이 통일의 주춧돌이라면, 주변국들의 협조는 통일의 서까래라고 생각하고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변국가들의 입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주변국가들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반도가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지대가 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국들의 이런 입장을 단순히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에게 남북한의 통일이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통일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분단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으로 인해 지역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달리, 동북아지역의 지역화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것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이런 애로를 타개하고 동북아시아대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1)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정신을 갖자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맡아서 실천하자.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대중화'라는 특징이다. 익명성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긴 채 무책임하게 살아가려는 특징이 나타난다. 내가 하기 싫다고 타인에게 미룬다면 타인 또한 좋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모습

아할리 만무하다. 어려운 일도 해보려는 도전정신과 의욕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하자.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갖춰진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성취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과 북의 모든 민족구성원은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인 통일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통일에 접근해가야 한다.

이는 통일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차피 우리 민족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2) 강한 의지력을 키우자

턱걸이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나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니까”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학생이 있다.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안간힘을 다 쏟는 학생의 얼굴에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구경을 하던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의 함성을 지를 때 그 학생은 드디어 “생애 첫 턱걸이를 했구나.”라는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대부분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기대려고 한다. 이는 자신감이 부족해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강한 의지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인한 의지력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취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갖자

부모님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사랑을 주고 받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을 때’ 행복할 수도 있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은 몇 곱절 더 큰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아껴주려는 노력을 하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주변의 이웃 등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 자신의 성장과 국가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결코 통일이라는 과업은 성취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4)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와 덕목을 계승하고, 서구의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본받도록 하자. 다문화·다가치 사회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문제해결 방법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보다 새롭고 참신한 생각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와 더불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새롭고 건전한 청소년의 의식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야말로 남북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는 기본적 사고의 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문제해결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기보다는,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5)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여 문제를 그릇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큰 목소리보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와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오만은 결코 겸손을 이길 수 없음을 명심하여 청소년들은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겸허한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은 경제력이나 국력이 앞선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 (6) 국제 사회의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무관심한 것 같지만 세심하게 각국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국제 관계에서의 현실이다. 각국은 자국의 실리적인 문제에 예민하며 냉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국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흐름에 뒤쳐진다면 결코 '세계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남북문제는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남북의 통일문제는 분명 우리 문제이지만,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사항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큰 안목을 가져야 한다.

## (7)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신을 갖자

나약한 청소년, 입시 과정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의 체력은 체격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즉 몸은 비대하고 키는 컸지만, 기본적인 체력은 자꾸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에 달려 있다. 청소년들은 건강한 신체의 단련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격언에서도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통일은 분명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통일국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역세대이다. 통일국가가 우리 모두에게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상을 주려면 그 주역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강인한 체력,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청소년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고, 통일은 그만큼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8)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청소년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여 항상 배고픈 생활, 추위에 고통받는 생활을 해 왔다. “내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잘 먹여서 키워야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님의 생각이다. 이러한 부모님의 배려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건강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체격도 우람한 멋진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처럼 많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위하고 나눠주고, 아껴주는 모습보다는 ‘내 것’, ‘남의 것’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하고, 내가 아닌 타인을 공경하고 아껴주며 나눠주는 따뜻한 인간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남북이 통일을 위해 민족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때,

“통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지금 이대료가 더 좋다.”

“통일이 되면 못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통일에 대해 관심 없다.”는 청소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서로 아껴주고, 베푸는 삶,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내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하자.

### (9) 민주시민의 질서를 습관화하자

기본생활 습관이 충실한 사람은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질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킨다면 우리 학교, 사회, 국가는 민주적인 사회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버스 탈 때 줄서기, 식당에서 줄서기, 각종 모임이나 회의 때 올바른 차례지키기 등은 문화 선진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인 것이다.

새로운 통일한국의 선진시민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 (10) 나 보다는 가족, 사회, 국가의 소중함과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이가 되자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여 셈을 한다. 보다 큰 숫자는 작은 숫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사회는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조직을 다 포함한다.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라는 말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나’ 하나보다는 우리 가족, 이웃, 학교, 사회, 국가라는 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큰 집단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란 미래를 내다 보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며,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통일된 한반도, 대륙으로 복원된 한반도의 미래는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속 좁고 근시안적인 젊은이보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넓은 포부, 기개와 능

력, 대륙적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를 원한다. 그런 젊은이야말로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1)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자

우리가 하나된 민족의식을 가지려면 '화해의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은 아직 서로를 하나의 동포로 껴안으려는 의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주민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동포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화해의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화해의식'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나눔은 '물자의 나눔'으로 시작하지만, 저절로 '마음의 나눔'으로 연결된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도 어려운 계층이 많지만 북한에는 단순히 어려운 계층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우리들의 물자의 나눔은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정신에 따른 따뜻한 마음도 전달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마음의 나눔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물자가 화해의 비둘기 역할도 할 것이므로 마음의 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자의 나눔을 통해 북녘 땅의 청소년들과 마음의 나눔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의 같은 통일의 주역으로서 필요한 일 아닐까?

### (12)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그리고 생활양식 등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있을 때 어떻게 대할까? 또 우리와 낯선 것들, 예를 들면, 피부나 언어, 관습 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선진 외국인에게는 무조건적인 동경을,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고방식을 은연 중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우리 마음속에 차별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것도 이러한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은 종종 나와 다르게 생각되고 이해가 안되는 친구들을 왕따시킨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당하는 친구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은 이질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북녘 땅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함께 살기'를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왕따 안하기'부터 실천하여 통일을 위해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자.



클릭

알고 싶어요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의 「통일꿈나무」에  
들어가서 다시금 통일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 통일만화 마을
- 평양으로의 여행
- 북한 어린이의 생활
- 통일학교
- 북한 애니메이션
- 독일 통일 이야기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000년 11월 6일 인쇄

2000년 11월 8일 발행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 901-7120~3

FAX : 02)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TEL : 02) 2266-5277

FAX : 02) 2277-6985

